



# 보도자료 Press Release

2021년 3월 9일

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.

총 1장

담당: 홍보실

전화: 02-3701-7338

이메일: [communications@asaninst.org](mailto:communications@asaninst.org)

## 아산정책연구원, '바이든 시대 중동정책의 특징과 도전' 이슈브리프 발표

아산정책연구원은 3월 9일(화), 장지향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“바이든 시대 중동정책 특징과 도전”을 발표했다. 이 이슈브리프에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정책 방향을 (1) 이란 핵합의 복원, (2) 민주주의와 동맹 가치 강조, (3) 아브라함 협정 지지라는 세 측면에서 분석하고, 이에 대한 도전 요인과 향후 전망을 다루고 있다. 장지향 박사는 이란 급진 강경파의 장악력 강화, 역내 미 동맹국 가운데 민주주의 모범국 부재, 아랍-이스라엘 데탕트를 향한 팔레스타인의 반발로 인해 새로운 미 행정부의 중동정책은 빠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. 장 박사는 이에 더해 러시아의 영향력 부상, 러시아-이란-중국의 반미 국가 연대 강화 역시 바이든 시대 중동정책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.

장지향 박사는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중동정책은 도처에 포진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다자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중동정책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다. 바이든 시대 중동에 대한 민주주의와 인권 강조 정책은 우리의 대중동 중견국 외교와 같은 원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자무대에서 한미 양국의 가치외교 협력을 꾀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. 장 박사는 한미 공조는 바이든 정부의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. 이란 핵합의가 북핵 협상에 주는 함의를 고려해서 이란 핵개발 포기의 분명한 원칙이 미-이란 간 복원 협상에서 관철되도록 중동 핵 비확산을 주장하는 우리의 중견국 외교를 활발히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.

장지향 박사는 바이든 정부의 아랍-이스라엘 데탕트 지지는 우리가 진행하는 UAE의 개혁개방 프로젝트 협력과도 맥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. UAE는 최근 수소경제를 비롯한 첨단과학 분야에서 우리와 경험을 적극 추진 중이고, 2020년 12월 한-이스라엘 FTA가 3년만에 타결되어 2021년 초 발효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한국-이스라엘-UAE 3국 간 신산업 분야 협력을 활성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. 바이든 정부의 중동정책 기조가 역내 미국의 역할을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아랍-이스라엘의 전략적 연합에 협력해 중동 질서 안정에 기여하면서 한미 공조에 도움을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한다.

\*보고서 관련 문의: 장지향 선임연구위원 02)3701-7313, [jhjang@asaninst.org](mailto:jhjang@asaninst.org)

아산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이다. 한반도, 동아시아,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,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.